

2008년 8월 「언론보도」 현황



[조달청 공급 누전차단기, 알고 보니 불법제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누전차단기가 '조달청 우수상품'으로까지 선정돼 관공서에 납품 된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다.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는 지난 6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누전차단기를 판매한 혐의로 10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이 가운데는 안전인증을 허위로 붙여 판매한 S업체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S업체는 불법 누전차단기를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상품으로 선정 받고 시흥시청에 130개를 납품하는 등 22개 관공서에 천여 개, 1억 7천만 원 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S사 누전차단기가 불법 제품인지 몰랐고 업체가 판매 과정에서 허위 인증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상품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YTN 김혜은 기자(2008. 8. 19)

[안전 인증 없는 '전기 모기채' 감전 조심]



잡화상들이 밀집된 서울 창신동의 한 골목,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서 '전기 모기채(전격살충기)'를 점검하여보니 상당수는 중국에서 들여온 이른바 충전식 전기모기채였다. 그런데 이들 충전식은 모두 전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었고, 판매상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충전식 전기모기채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해보니 전원을 켜자 금속망의 순간 전압이 무려 4천볼트 이상 올라갔으며, 전원을 꺼도 안전 전압인 45볼트까지 떨어지는데 1분 40초가 넘게 걸렸다. 무심코 손을 댔다간 자칫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였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전기 모기채 판매가 급증하면서 감전 사고 피해를 호소하는 글도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KBS 조지현 기자(2008. 8. 17)